

금융권 올 하반기 채용문 ‘활짝’

신한 400·光銀 40명 등 신입채용 늘려...금융공기업도 동참

하반기 금융권에서 1300명 규모 신규 인력을 뽑는다. 한국은행, 금감원 등 금융 공기업도 채용공고를 냈거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예년과 비슷하거나 채용인원을 소폭 늘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9월초 채용 공고를 내고 3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20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100명 이상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정규직 350명을 채용한데 이어 9월 중순 4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올해 연간 공채 규모는

지난해의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전담텔러는 200명,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피크타임 텔러는 200명을 각각 더 뽑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채용 규모를 200명으로 잡았으며 농협도 5급 신규직원 200명 안팎을 뽑을 계획이다. 외환은행도 예년 수준인 10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9월말 채용 공고를 낸다. 기업은행은 상반기에 200명을 뽑는데 이어 10월에 2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10월말 예년 수준에서 신입행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금감감독원은 이번주 채용 공고를

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29명을 뽑았으나 최근 감독요구가 늘어나면서 올해 4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최근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신입직원을 모집 중이다. 한은은 지방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모두 40명인 채용 예정인원의 20%인 8명을 지방 출신자로 뽑을 예정이다. 해외전문인력 채용도 늘릴 예정이다. 다음달 6일부터 1주일간 지원서를 접수하고 11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작년까지 마친지라도 신입직원 20명을 선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공채

기관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신한	400명	9월중순
우리	300명 이상	9월초
하나	200명	하반기
농협	200명(5급)	하반기
기업	200명	10월중
한국은행	40명 이상	미정
한국은행	40명	9월6~13일
광주은행	40명	8월1~9월3일

를 진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일간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1천513명이 지원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협뉴스



올망졸망 ‘포도 페스티벌’

2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포도 페스티벌’을 열고 청포도·거봉·캠벨 등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고 있다. 포도는 비타민과 유가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생산성 10배차...급여는 비슷

은행별 직원 1인당

올해 상반기에 은행별 직원의 1인당 생산성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 8개 국내 은행의 직원 9만 1609여명이 올린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6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은행 직원 1명당 평균 순익

은 4026만원을 기록했다. 생산성이 작년 상반기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은행별로는 차이가 컸다. 신한은행이 1인당 7348만원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외환은행이 718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기업은행은 6909만원으로 7000만원에 육박했다. 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4832만원과 4099만원이었으며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은 3289만원

과 3254만원이었다. 직원의 생산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행별 직원 급여는 차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의 직원 1인당 급여는 상반기 평균 3080만원이었으며 국민은행 직원의 급여는 2790만원으로 290만원 차이였다. 생산성 차이 6681만원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협뉴스

지방세 10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CD)에서 지방세를 OCR(광학문자판독)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은행 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전용 단말기에서 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용 단말기는 은행 점포당 많아 한두 대 정

도만 설치돼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쓸 수 없어 이용하기 불편했다. 그러나 10월1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든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전국 모든 은행 전산망과 연계됨에 따라 거주지의 지역에 토지나 건물 소유한 납세자나 지방에 직영점이 있는 기업도 지방세를 거주지나 본사 소재 은행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됐다. /연협뉴스

봉선동에 휘미리마트 5000점 기념점포

26일 제석산점에서 다양한 이벤트

편의점 휘미리마트가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5000점을 돌파한 기념으로 광주시 남구 봉선동 광주제석산점을 5000점 기념점포로 선정하고 26일 기념행사를 갖는다. 광주제석산점은 야채·정과·반찬류 등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는 생활밀착형 특화 점포로 휘미

리마트가 지향하는 컨셉트를 대표하는 점포 중 한 곳이다. 휘미리마트는 카페형, 생활 밀착형, 미니형, 지역특화형 등을 컨셉트로 내세운 전국 8개 점포를 5000점 기념 점포로 지정했다. 휘미리마트는 1990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지

난 16일 서울 호수점·신반포역점, 익산 부송주공점, 제주 신산점 등 4개 점포를 동시 오픈하면서 총 500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5000점포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5000개 점포에서 총 202품목의 상품들에 대해 1+1, 2+1, 증정 및 할인판매 등 ‘+1 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유통업계 추석선물 배송 ‘비상’

무더위 지속 예보에 신선도 유지 총력

추석 선물 배송이 절정을 이루는 9월 초순에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지역 유통업체들이 추석 선물 세트 배송·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류·과일·채소·생선 등 온도에 민감한 신선식품이 선물세트의 주류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등 대형마트는 갈비·굴비·육통·꽃감 등의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보냉팩이 포함된 포장상태에서 배송함으로써 배송과정에서 변질을 최소화하고, 과일은 배송직전까지 냉장상태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보냉 포장대상을 일부 화과자와 건과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거리 배송의 경우 냉장차 온도를 1~2도로 유지하고 반드시 3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이은미기자 emlee@

70%로 늘렸다. 차량 1대당 할당되는 배송 건수를 최소화해 상품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선상품 포장 작업시간도 앞당겨 새벽 5~6시에 배송센터로 보내고 오전 7시부터 배송작업을 시작하는 등 물류센터에서 적체되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평균 배송 시간은 갈비·굴비·육통·꽃감 등의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보냉팩이 포함된 포장상태에서 배송함으로써 배송과정에서 변질을 최소화하고, 과일은 배송직전까지 냉장상태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보냉 포장대상을 일부 화과자와 건과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거리 배송의 경우 냉장차 온도를 1~2도로 유지하고 반드시 3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이은미기자 emlee@

여성 직장인 연봉 남성의 77% 수준

남녀 직장인 사이의 연봉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이력서 52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연봉이 남성 2916만원, 여성 2247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7.0% 수준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남성 2799만원, 여성 217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7.7%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평균 연봉은 2005년 남성 2403만원, 여성 1850만원(남성의 77.0% 수준)에서 2008년 남성 2528만원, 여성 2034만원(남성의 80.5%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졌다가 지난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올해는 그 격차가 더 컸다. /연협뉴스

“10년후 소득의 10% 건강보험료로 내야”

매년 4조원씩 늘어 2020년 80조4000억 추산

보건사회연구원 전망

10년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지금의 두배가 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이 2.4배 늘어난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성영 연구

위원은 23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서 올해 77조원 규모의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33조5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2015년엔 51조7600억원, 2020년에

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2020년 보험제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연협뉴스

이것이 전원주택이다!!

30분 거리의 전원주택!

문의: 061)373-5667 / 010-6305-5567